

시리아 수도서 연쇄 폭탄테러... 평화회담 난항

시아파 성지 주변 60여명 사망

수니파 IS “우리 소행” 주장

3차 평화회담 정부·반군 갈등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아파 성지에서 지난 31일(현지시각) 연쇄 폭탄 공격이 발생해 최소 6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리아 국영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다마스쿠스 남쪽의 사이이다 자이납 지역에 있는 시아파 성지 주변에서 3차례의 폭탄이 일어났다.

이번 연쇄 폭탄폭발 적어도 60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사망자 중 25명은 친정부 성향의 시아파 대원들이라고 시리아 인권관측소(SHOR)는 밝혔다.

시리아의 한 소식통은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테러리스트 3명이 시아파 성지인 이 지역에서 대중이 모여 있을 때 폭탄 공격을 감행했고 이 중 한 건은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라고 보도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지역 일수단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버미트랩이 설치된 차량이 돌진하고 나서 폭발했다. 이 폭발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자 2명의 자살 폭탄범이 군중 속에서 자신이 두른 폭탄 벨트를 터뜨렸다.



처참한 현장 지난 31일(현지시각)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쪽의 사이이다 자이납 지역에 있는 시아파 성지 주변에서 3차례의 폭탄이 일어나 적어도 60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격은 유엔이 주관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한 다음날 발생했다. /연합뉴스

시리아 국영TV는 폭발 후 거리에서 파괴된 차량과 불에 탄 건물들의 장면을 내보냈다.

이 지역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들과 친정부 민병대가 보호해 온 곳이다.

이와 관련해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IS는 “3차례 폭탄 공격으로 76명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격은 유엔이 주관하는 시리아 평

화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한 다음날 발생했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부터 알아사드 정권 퇴진 운동이 벌어진 이후 지금까지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지속했으며 2014년부터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IS가 세력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한편 시리아 내전 종식을 목표로 지난 29일(현지시각) 막을 올린 제3차 시리아 평화회담이 정부와 반군의 좁혀지지 않는 갈등에 대규모 테러 사건까지 겹쳐 더욱 꼬이고 있다.

시리아 반군 측 대표인 “최고협상위원회”(HNC) 대표단은 3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평화회담을 소집한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와 처음으로 만나 회담 참여 여부를 조율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미스투라 특사는 시리아 정부, 반군, 유엔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3차 대화에 대한 합의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신 1일 오전 시리아 정부 대표단과, 오후 HNC 대표단과 각각 양자회담을 따로 열기로 했고 미스투라 특사는 밝혔다. /연합뉴스

덴기열과 혼동... 동남아 지카 바이러스 확산

인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국외여행 경험 없는 27세 남성이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이 지역에 이미 다수의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감염자가 남미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다른, 오히려 덴기열 환자에 가까운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덴기열 등 다른 열성질환으로 오인된 채 묻혀 있는 환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마트라섬 소두증 감염자를 확인한 에이즈관리센터생물학연구소는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제출한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해외 여행 경험이 없는 환자로부터 지카 바이러스가 분리된 것은 인도네시아에 이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보고서는 “이 지역의 지카 바이러스는 덴기열 감염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가벼운 증세로, 급성 열성 질환을 동반한 다수의 미진단(undiagnosed) 환자를 유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연구소는 또 “동남아에서는 아직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 보고가 드물다. 그러나 이는 덴기열과의 혼동, 실험실 진단의 어려움 등 요인으로 인해 과소평가된 것”이라며 “따라서 지카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번에 확인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도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팔꿈치와 무릎 관절통증, 근육통, 실신 등 증세를 나타내 잠비주(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일본, 국제사회서 ‘위안부 강제성’ 몰타기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한일 합의 이후 유엔 기구에 제출한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 내 위안부 문제 논의의 향배에 대해 우려를 갖게 한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한 한일 합의 이후에도 일본은 ‘강제연행 증거는 없다’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의견 상충 지남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당시인 2007년에 이미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제

택했으며, 이번 합의에도 강제성에 대한 명확한 기술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이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위안부 동원의 ‘총체적인’ 강제성에 몰타기를 하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질의에서 “최근 위안부의 강제적인 이송(forcible removal)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었다는 공식적인 발언들을 접했다. 그 정보에 대해 언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실시한 각종 진상조사 방법을 열거한 뒤 “이런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18 전한 부흥시킨 명군 선제

선제(宣帝, BC 91~49)는 전한의 제9대 황제로 무제의 증손이다. 무제의 황태자 유거가 강종의 무고사건에 연루되 희생됨에 따라 일찍이 민간에서 자랐다. 대장군 광광이 옹립하여 황제가 되었다.

선제의 이름은 유병이로 굴곡진 초년의 삶은 무제 말년의 무고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무제가 나이들자 사함을 의심하는 경향이 깊어졌다. 이에 따라 무고사건이 자주 일어났고 많은 왕족과 중신이 처형되었다. 승상 공손하와 그 일족이 무고사건의 희생양이 되었고 위황후가 낳은 제음공주, 양석공주가 무고죄로 주살되었다. 위황후의 동생인 대장군 위경의 아들 위항도 무고에 연루되어 죽었다.

강종은 출세지상주의자로서 황태자의 심부름꾼이 천자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달리는 것을 적발해 황태자를 곤경에 빠트렸다. 황태자의 미움을

은 사퇴의 뜻을 밝혔다. 황제는 이를 불허하고 조정 대신에게 보고하도록 명하였다.

광광의 처 광현은 자신의 딸을 황후로 만들기 위해 허황후를 독살했다. 결국 광현의 딸이 새 황후가 되었다. BC 68년 광광이 죽자 선제는 서서히 광씨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BC 69년 죽은 허황후가 낳은 유석을 황태자로 세웠다. 신하 중에서 상소를 하고 싶으면 상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황제에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광의 일족인 광우와 광산이 장악한 군사권도 빼앗겼다. 위기에 몰린 광씨 일족의 쿠데타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일족은 모조리 주살되었다. 본격적인 선제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선제는 오랜 민간생활 덕에 민생의 어려움을 잘 이해했다. 그는 유교 일변도의 국가 운영을 배격하고 패도와 왕도를 섞어서 피야만 한다는 실용주의적 통치 방식을 구사했다. 민생이

민생·치안 살핀 실용주의 통치

받게 된 강종은 자신이 살기 위해 황태자를 무고했다. 황태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죄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처형되었다. 궁지에 몰린 황태자는 강종을 죽이고 반란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무제의 과단성 있는 조치로 쿠데타는 실패했고 황태자는 목을 매 자살했다. 강보에 싸여있던 손자 유병이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유병이는 옥중에서 여죄수에게 양육되어 민간에서 자랐다. 하급관료인 허광환의 딸과 결혼해 훗날 원제가 되는 아들 석을 두었다. 무제의 뒤를 이은 소제가 어린 나이에 죽자 실력자 광광이 유병이를 후임 황제로 옹립하니 그가 선제다. 황제가 되는 해 태산이 있는 큰 돌이 우뚝 서고, 상림원에 있는 큰 바드나무 밑에 별래가 먹었는데 공손병이(公孫病已)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황제가 민간에서 나온다는 징조였다.

광광은 선제 앞에서 대신 수레를 몰고 사담에 가 제사를 지냈는데 그 자리가 비늘방석 같았다. 장군 장안세가 수레를 몰게 된 후에야 안심했다고 한다. 광광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다.

선제는 평민 시절 결혼한 허씨를 황후로 삼았다. 즉위 2년이 지나자 광광

어려워지자 사회질서와 치안이 많이 흐트러졌다. 유교적 이상주의 만으로 천하가 다스려질 수 없었다. 그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를 다잡았다. 당연히 법가 계통의 관료나 학자가 중용되는 조치가 유가를 발탁해달라는 황태자의 간청에 대해 “속유(俗儒)로 아직 때가 이르다”며 엄격한 법가주의 통치를 고수했다.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하여 흉년에는 단순히 출병해 한왕조의 무력을 과시했다. 신장 우루무치 주변의 차사국이 한나라를 배신하자 군대를 보내 정벌했다. 다행히 굴치당어린 흉노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BC 51년 흉노의 호한사신 우가 장안에 입조했다. 드디어 한나라는 흉노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역이 한나라 영토에 편입되고 서역도호부가 설치되었다.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교역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BC 49년 선제는 미양궁에서 죽었다. 23년 재위해 전한의 부흥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나치게 내조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내각인 외조가 약화되었다. 선제 사후 환관과 외척이 발호하기 시작했다. 기회주의자 왕망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